

‘텍스트 구조 표지’의 독해에서의 기능

金 烽 洵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I.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
| II. 텍스트 구조 표지의 개념 | 1.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
| 1. 텍스트 구조 | 2.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검증 |
| 2. 텍스트 구조 표지 | IV. 결론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다음의 글에서 말하는 ‘국민’의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는 국민을 단순히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 위에 같이 살고 있는 혈족이며 동포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아닌,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등 모두를 한데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

이 뜻은 직접 풀이해서 매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은 국어교과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어과의 독해 지도는 이해된 내용을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된 내용을 전달할 경우, 그 글은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 학생이 앞으로 만나게 될 무수한 글들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바가 없게 된다. 그러나 국어 교육은 이후에 학생이 접하게 될 다종다양한 글들의 독해도 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독해의 과정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된다. 하나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파악해 가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에 기초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전자를 하향식 이해 과정이라 하고 후자를 상향식 이해 과정이라 한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독해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작용한다.¹⁾

이러한 독해 이론을 토대로 새로이 접하는 다종다양한 글들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독해 지도법을 두 가지 방향에서 설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학생이 독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하향식 접근법이다. 앞의 예문의 경우, 학생이 알고 있는 또는 생각한 바 있는 ‘민족과 국민의 관계’, ‘국민의 역할’ 등을 상기시켜 이 구절과 관계지으면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국민’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독자의 기존 지식을 매우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이미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통해 글에 담긴 새로운 지식을 파악하게 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당면한 글의 이해에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지식이 있더라도 적시적소에 활성화하지 못하면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은 모르던 것을 새로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지식에 의존하는 접근법은 온전한 독해법이 되지 못한다.²⁾ 또한 이러한 하향적 독해법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교사가 학생의 지식체계나 사고체계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를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소들의 의미 및 기능 분석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있다. 글자와 어휘, 문장 등 각 언어 단위들의 의미와 기능을 정

1)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 상호작용적 접근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노명완 (1988) pp.114-139, pp.175-206 참조.

2) 하향식 독해 이론, 즉 스키마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성영(1990) pp.52-73 참조.

확히 파악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핵심어를 찾고, 중심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글의 이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해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도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핵심어나 중심 내용 등을 알아내는 방법을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보다 미시적으로는 문장의 연결성에 주목하게 하거나 어휘의 정확하고 적절한 의미를 판단하는 등의 방법을 역시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상향적 접근법은, 하향식 지도의 장점인 효율적인 독해나 능동적인 지식 생성 등의 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나, 글의 의미 구조를 충실히 구성해가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고, 어느 독해에서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적절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글을 성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독해법이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상향식 독해 지도법의 한 시도로서,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서 이해의 단서가 되는 언어적 요소를 찾아 글 이해 즉 글의 의미 구조 구성 과정에 활용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의 의미를 텍스트의 언어 형식에 의존하여 구성하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앞에서 제시된 예문은 다음과 같이, 언어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적 독해법으로 지도될 수 있다.

- 우리는 국민을
- 즉 { a. 단순히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 b. 이 땅 위에 같이 살고 있는 혈족이며 동포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 c.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아닌,
 { d.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등 모두를 한데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즉’에 의해 전자와 후자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다는’과 ‘아니라’에 의해 그 전후가 서로 상대적인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언어 요소를 단서로 한 독해 지도로, 언어 형식에서 출발하는 상향적 독해법을 지도할 수 있다. 즉, ‘보다는’으로부터 a, b의 차이점을 찾고, ‘아닌’으로부터는 c, d의 차이점을,

‘즉’으로부터 a와 c, b와 d의 공통점을 각각 찾아 ‘국민’의 의미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이후에 접하게 될 다른 글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에 독해 지도의 한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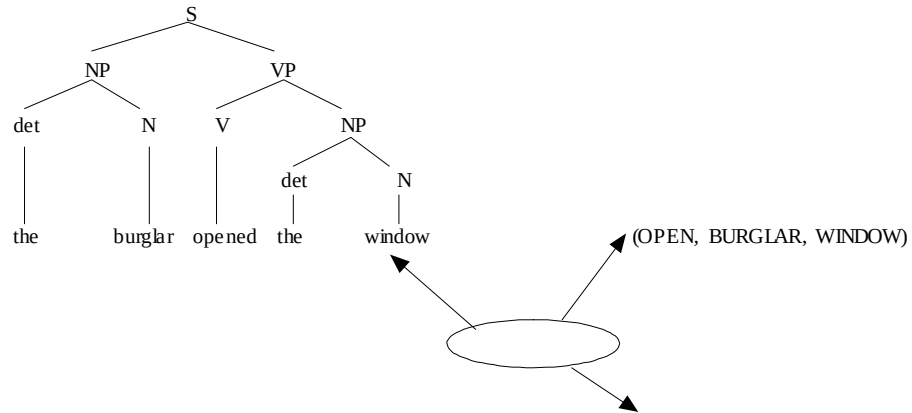
본고는 이상과 같이 상향적 독해의 한 요소로 ‘텍스트 구조 표지’의 활용을 설정하고, 그 개념을 규정한다. 그리고 글 구조 표지가 독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이로써 독해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 활용의 유용성을 말하고자 한다.³⁾

II. 텍스트 구조 표지의 개념

1. 텍스트 구조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머리 속에서는 몇 가지 층위의 표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er, 1990). 예컨대, 문장의 통사적 조직망, 정밀한 축어적인 상태의 의미, 명제들이 통합된 조직망, 지시되는 상황 등의 표상이 형성된다. “The burglar opened the window.”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자를 분석하고, 단어를 식별하며, 그 문법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명제를 구성하며, 장면을 연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들은 각각 표상을 형성하고, 그런 표상들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도식된다.

3) 본고에서는 ‘글’과 ‘텍스트’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맥락에 따라 바꿔 쓰고자 한다. 본고에서 ‘글’ 또는 ‘텍스트’란 연결된 둘 이상의 명제가 일정한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적 완결체를 이룬 언어적 단위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완결된 한 편의 글, 단락들을 일반적으로 뜻한다. 작게는 둘 이상의 단문의 연결체로서 완결된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 한 문장 내에서도 둘 이상의 명제가 설정되고 그들이 각각 독립된 명제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로 맺어져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 것까지를 포함한다.



<표 1> “The burglar opened the window.” 표상 층위

기억 검사를 통해 이런 여러 층위의 표상이 심리적으로 실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Singer, 1990).

이러한 여러 층위의 표상을 크게 두 종류로 대별하면, 통사적 층위와 의미적인 층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언어의 형식을 중심으로 한 표상이고 후자는 언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표상이다. 이 중, 텍스트 이해의 결과로서 기억되는 것은 의미적 표상이다(Sachs, 1967). 텍스트를 읽는 목적 또한 의미를 표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해 과정에서의 핵심은 의미의 표상에 있고 따라서 이후의 논의도 텍스트의 의미 표상에 초점을 둔다.

텍스트에서 표상되는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층위로 나타난다. 축어적인 의미, 추론이 포함된 의미,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구성된 의미, 비판적인 의미 등인데 이들은 일단 표상의 층위가 서로 다르고 또 동일 층위 내에서도 독자의 사전 지식, 이해 능력, 읽는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인 표상 내용이 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의미 표상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공통분모는 이들 다양한 의미에서 변함없이 공통되는 요소인 텍스트 자료에 의해 가능하다. 텍스트 자료에서 초개인적인 언어현상에 의해 추출되는 의미는 어떠한 차원의 의미에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 차원의 의미를 표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비록 특정한 목적에 맞게 텍스트 중에서 일부의 의미만을 선택적으로 표상한 것일지라도, 필자의 의도가 반영된 이 기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이후라야 선택적인 의미의 올바른 표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습적인 언어 기호로서 확실히 장치한 최소한의 의미이다. 어떠한 종류의 의미를 표상하더라도 바로 이 의미의 표상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듯, 텍스트의 언어적 자료에 기초하여 표상되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 구조(text structure)’라 한다. 텍스트 구조는 글 자료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또한 어떠한 의미를 표상하든 간에 그 목적인 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표상해야 하는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텍스트 구조에 대한 연구는 Kintsch(1974)의 텍스트 기저(text-base)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그는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아이디어에 대한 명제와, 명시적인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아이디어⁴⁾에 대한 명제의 두 가지를 설정하여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는 ‘관계적 명제(connective propositions)’도 설정하고 있는데, 관계적 명제란 텍스트에 제시된 아이디어들간의 순서를 정하고, 텍스트의 결속성(coherence)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들을 관련지어주는 명제이다. 요약하면, Kintsch(1974)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고, 이 아이디어들이 관계적 명제, 즉 연결사(connectives)를 통해서 묶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Kintsch의 분석 예는 다음과 같다(노명완, 1988, 11장에서 재인용).

A series of violent, bloody encounter between police and Black Panther Party members punctuated the early summer days of 1969. Soon after, a group of Black

4) 텍스트에서의 추론(inference)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텍스트 밖의 지식에서 추론해내는 비명제적 추론(non-propositional inference)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에 진술되어 있는 명제들에서 추론해내는 명제적 추론(propositional inference)이다(Kintsch, 1974). 여기에서는 명제적 추론의 결과로 생성된 아이디어만을 말한다.

students that I teach at California State College, Los Angeles, Who were members of the Panther Party began to complain of continuous harassment by law enforcement officers.

일련의 격렬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충돌이 경찰과 검은 표범 클럽 회원들 사이에 일어나 1969년 이른 여름의 날들을 장식하였다. 곧 이어, 표범 클럽의 회원이면서 또한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일군의 흑인 학생들이 경찰의 계속적인 핍박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첫째 문장

P1 SERIES, ENCOUNTER

P2 VIOLENT, ENCOUNTER

P3 BLOODY, ENCOUNTER

P4 BETWEEN, ECOUNTER,

POLICE, BBLACK PANTHER

P5 TIME: IN, ENCOUNTER, SUMMER

P6 EARLY, SUMMER

P7 TIME: IN, SUMMER, 1969

둘째 문장

P8 SOON, P9

P9 AFTER, P4, P16

P10 GROUP, STUDENT

P11 BLACK,, STUDENT

P12 TEACH, SPEAKER, STUDENT

P13 LOCATION: AT, P12,

CAL. STATE COLLEGE

P14 LOCATION: AT,

CAL. STATE COLLEGE, LOS ANGELES

P15 IS A, STUDENT, BLACK PANTHER

P16 BEGIN, P17

P17 COMPLAIN, STUDENT, P19

P18 CONTINUOUS, P19

P19 HARASS, POLICE, STUDENT

BETWEEN, ENCOUNTER, POLICE, BALCK PANTHER

Kintsch식의 텍스트 구조 표상의 원리는 ‘반복(repetition)’이다. 최상위 명제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명제들이 연결됨으로써 텍스트 구조가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텍스트의 의미 구조는 위계적이다. 선적인(linear) 언어자료 즉 텍스트는 망구조의 의미를 표상하며, 이 망구조는 위계적인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기억 내용은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를 이룬다(Kintsch, 1974; Fredriksen, 1975; Meyer, 1975).

Kintsch의 텍스트 분석은 인간의 기억구조와 일치하는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 의미 구조의 특징은 위계적인 체계성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나 텍스트 의미는 위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상하위 관계만이 아니라, 상하위에 있는 또는 동일 위계상에 있는 명제들간의 논리적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위계적으로는 동일한 구조가 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관계로, 이를테면 인과 관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열 관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포함해야 텍스트 구조는 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

의미 요소들간의 논리적 관계의 분석을 Meyer(1975)에서 볼 수 있다. Meyer(1975)는 Aristotle의 수사학과, Fillmore(1968)의 격문법, Grimes(1975)의 명제의 의미 문법을 토대로 텍스트 내 명제의 논리적 관계를 집합(collection), 인과(causal), 반응(문제-해결, response), 비교(comparison), 상술(discription)의 다섯 가지 기본 관계로 정리하였다.

집합 관계는 연합(association) 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목록적 관계이다. 인과 관계는 집합 관계 중에서 요소들간에 시간적 선후 개념이 성립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는 원인이되고 후행하는 요소는 결과가 되는 관계이다. 반응 관계(문제-해결 관계)는 인과 관계 중에서 특히 원인은 문제로서의 성격을, 결과는 그 해결로서의 성격을 갖는 관계이다. 이상의 세 가지 논리 관계는 연속선상에 놓인다. 비교 관계는 둘 이상의 요소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쌍을 이룰 때의 관계이다. 부가 관계는 어느 한 요소는 일반적인 진술이고 다른 한 요소는 이것에 대한 속성, 예시 등으로 구체적인 진술임으로 해서 형성되는 관계이다.

다음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이 논리 관계를 포함하는 위계적인 의미 구조로 분석된다(Meyer, 1985b).

문제는 유조선의 기름 유출을 막는 것이다. 유조선은 대개 오십만톤의 기름을 운송할 수 있다. 유조선의 크기는 축구장 다섯 개를 합친 정도이고, 옴파이어스테이트 빌딩만큼 되는 크기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난파된 유조선에서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데에 고민이 있다. 기름 유출의 결과로 환경 오염이 야기된다. 유조선 난파로 인한 환경 오염의 한 예는 1970년 스페인 근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난파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난파된 유조선의 탱크가 폭발하자 기름은 안개처럼 얇은 기름 방울로 변하여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며칠 후 인근 지역에는 검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로 인하여 곡식이 말라 죽고 가축이 병들어 죽었다.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예는 1967년 Torrey Canyon호가 콘월 해안에서 좌초되어 20만 마리에 달하는 바다새가 기름에 덮혀 죽는 결과는 낡은 일이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예는, 1975년 7월경, Florida의 Geiger Key에서 북쪽의 Key West의 해안에 이르는 미국 해안이 광대한 기름띠를 덮어 썼던 일이다. 해안 수비대원들이 화학적 단서를 발견해서 그 해 11월 7일 그리스인 선장인 Vasilios K. Psarroulis를 체포했다. 4만 갤론에 달하는 원유 감량을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름 유출로, 지구 산소의 70%를 생산하며 바다 생물의 주요 먹이가 되는 해양 미생물도 죽는다.

유조선 난파의 주된 원인은 폭풍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과 동력의 부족이다. 대개의 유조선에는 동력을 공급하는 보일러 하나와 배를 움직이는 프로펠러 하나만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세계 원유 수송의 80퍼센트를 유조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전문 훈련 기관에서 유조선 승무원들에게 유조선의 안전 운항 방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 둘째,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프로펠러와 보조 보일러를 장착한 유조선을 제작하는 일이다. 셋째, 유조선이 해안에 접근했을 때, 공항의 관제탑처럼, 안전하게 운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책들로 유조선이 보다 안전하게 원유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문제해결)					
문제		해결			
유조선의 기름 유출		승무원 훈련	유조선 보완	정박시설 마련	
부가	인과	부가	부가	인과	비교
	(선행) (후행)			유조선 안내	운항 금지
장비·동력부족					
부가	인과			비교	
	(선행) (후행)			공항 관제탑	
기름 유출 환경 오염					
부가, 집합					
인과		인과		인과	
(선행)	(후행)	(선행)	(후행)	(선행)	(후행)
곡식 가축 피해		난파	바다새 죽음	난파	바다새 죽음
인과	부가	부가	부가	부가	부가
	(선행) (후행)				
폭발 기름 퍼짐, 검은 비					
부가	부가				

<표 3> 텍스트 구조(II)

Meyer(1985b)의 텍스트 구조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각 명제들의 위계적 관계가 결정됨으로써 구성된다. 논리적 관계가 텍스트 구조 분석의 중심 원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수준의 관계가 텍스트 구조의 핵심으로서, 이 관계를 정점으로 하여 하위 수준의 관계들이 차례로 분석된다.

텍스트 구조는 Kintsch(1974)와 Meyer(1985a,b)의 연구 모두에서 위계적인 체

계의 의미 구조로 나타난다. 그리고 Meyer(1985b)에서 보듯이 위계적인 구조의 내부는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텍스트 구조는 논리적인 관계와 위계적인 관계로 연결된 체계적인 의미의 망이다.

2. 텍스트 구조 표지

성공적인 독해를 하려면, 앞 절에서 논의한 텍스트의 의미 구조, 즉 텍스트 구조의 정확한 표상이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 체계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적인 글에서라면 이러한 의미 구조의 표상은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더욱 중요하다.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표상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앞 절의 선행 연구들에서 본 바와 같이 최상위 명제 결정, 관계항 설정, 최상위 관계 발견, 논리적 관계 파악 등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읽기 지도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독자의 사전 지식에 터한 독해법이 아니라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 터한 독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텍스트에서 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독해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Kintsch류의 연구와 Meyer의 연구(특히 1985b)는 이러한 단서들을 간략하나마 제시하고 있다. Kintsch류의 연구에서 최상위 명제를 신호하는 것(signal)으로서 주요 항목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제목’과, ‘표지적 구(예컨대, the important point is that)’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ieras, 1985, p.99). 나아가 여러 종류의 관계를 현시하는 관계적 명제, 즉 연결사(connectives)를 설정하고 있는데(Turner & Greene, 1977), 그 예는 conjunction(and 등), purpose(in order to, so that 등) 등으로서 이들은 명제 내 그리고 명제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텍스트 구조 표상에 유용한 단서가 된다.

Meyer(1985a,b)는 텍스트에 신호어(signaling)가 있어 텍스트 구조의 표상을 신호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함을 지적하여, 신호어가 이해의 단서가 됨을 보다 명확히 말하고 있다. 신호어란 화제(topic)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더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의미 관계를 직접 밝힘으로써 의미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언어 형식이다(Meyer, 1985b, p.76). 이러한 신호어로는 네 가지 유형의

것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관계 구조에 대한 상세한 진술(예컨대, 반응 관계에서 ‘The problem is, the solution is---’, 집합 관계에서 ‘one, two, another’ 등)이고, 둘째 유형은 선행 진술로서, 뒤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될 내용을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용어로서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유형은 앞서 말해진 것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넷째 유형은 핵심 어휘로서 중요한 아이디어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표현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더한 것으로서 ‘My first point is’와 같은 것들이다.

이상의, Kintsch류의 연구와 Meyer의 연구의 신호어 개념에서 시사되듯이, 텍스트 구조의 구성 성분이 되는 내용 명제들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텍스트 구조의 모습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들이 독해의 단서가 되는 언어 요소들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독해의 단서가 되는 요소들이 텍스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생각하면 텍스트는 의미 구조 자체를 말한 언어 요소와 의미 구조를 안내하기 위하여 말해진 언어 요소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언어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의미 구조 자체를 말하는 즉 의미 구조의 구성 성분이 되는 ‘내용 명제’와, 이들 명제들이 의미 구조를 이루는 방식을 안내한 명제 즉 내용 명제들의 위계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관계 명제’의 두 가지 차원의 명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관계 명제가 언어화된 요소들을 체계화함으로써 독해의 단서를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내용 명제는, 상태·과정·행동·사건 등과 시간·장소·기타 환경적 요소들이 결합된 사상(事象)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의미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 성분이 된다.⁵⁾ 내용 명제는 독해에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명제로 기능하여, 의미 구조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다.

관계 명제는 내용 명제와 달리 구체적인 사상이 표상되지 않으며, 대신 둘 이상의 내용 명제가 연결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다.’는 두 문장으로 된 텍스트의 텍스트 구조는 P1[일어나

5) 개념이 지시 대상을 갖는 것과 같이, 명제에도 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사상(事象)이 곧 명제의 지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van Dijk & Kintsch(1983)에서는 FACT라 하여 명제의 지시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다; 전쟁], P2[불행해지다; [많다; 사람]], P3[기인하다; P2, P1]의 세 명제로 구성되는데, 이 중 P3는 관계적 명제로서 ‘그래서’라는 언어 형식에서 표상된다. 관계 명제를 표상하는 언어 형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접속어인데, 이 외에도 Kintsch류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중심 생각 즉 상위 명제임을 지적하는 언어 표현들과 Meyer(1985b)가 제시한 바 있듯이 논리적 관계를 직접 언급하는 언어 표현들도 모두 관계적 명제를 표상하는 언어 요소들이다.

이러한 두 차원의 명제 중에서 관계 명제가 독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단서가 되는 유용한 텍스트 요소이다. 내용 명제만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그 명제들간의 관계는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써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지식이 없거나 적정의 추론력이 없을 경우 의미 구조의 구성에는 실패하고 만다. 이런 경우 내용 명제들은 각각 개별적인 내용으로만 이해될 뿐으로 그 연관성이 형성되지 않아 의미 관계의 망(network)인 의미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관계 명제가 언급됨으로 하여 내용 명제들간의 관계가 명시되고 따라서 내용 명제들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의미 구조를 보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 명제는 의미 구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독자의 선행 지식이 아닌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 기반하는 상향적 독해법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계 명제를 표현한 언어 형식, 즉 의미 구조 구성의 단서가 되는 언어 형식을 ‘텍스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 structure)’라 한다.⁶⁾

III.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1.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독해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의 필요성은 텍스트 구조의 복잡성과 독자의 미숙성

6) ‘표지(marker)’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학에서 ‘언어 요소들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언어) 형식’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본고에서의 ‘내용 명제들간의 관계를 표현한 언어 형식’의 개념과 상통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신호어(signaling)’는 필자의 의도가 강조된 용어인데, 본고는 필자나 독자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텍스트의 언어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로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언어적 성격을 반영하기에 보다 적합한 용어인 ‘표지’를 사용한다.

에서 발생한다. 텍스트 구조가 복잡하면 독자가 추론해야 할 관계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 용량이 커짐으로써 독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표지는 추론해야 할 관계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관계의 파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내용 구조의 체계가 표지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독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내용 명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내용 명제들간의 관계가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인 등의 내용상의 문제로 하여 추론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독자의 독해력 수준이 낮을 때에도 텍스트 구조 표지는 매우 중요하다. 독해력 수준이 낮은 것은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휘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런 지식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추리력의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인데, 텍스트 구조 표지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구조 표지가 필요한 상황 즉 텍스트 구조가 복잡하거나 독자가 미숙한 상황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는 독해 과정에 매우 능동적으로 기능하여 독해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텍스트 구조 표지는 내용 명제들의 관계를 예측하게 하기도 하고 확인하게 하기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의미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더불어 내용 명제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표지를 통해 그 내용 명제의 의미를 역추적하는 추론도 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표지의 기능은 경험적으로도 쉬이 알 수 있는데, 읽다가 일단 표지적인 요소가 나오면 이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후속 내용을 점검해 가고, 또 읽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표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되짚어 가며 다시 읽는다. 또한 번역 작업에서도 처음에는 특정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어떤 표지가 나왔을 때 이 표지를 계기로 그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와 다른 문장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게 된다.

요컨대 독해 과정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는 내용 명제들간의 관계를 예측·확인하게 하고, 내용 명제 자체의 의미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능동적인 기능을 하여 독해를 쉽고 정확하게 하도록 해 준다. 즉 텍스트 구조 표지는 정확하고 용이한 이해를 유도하여 독해 결과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2.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 검증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표지 텍스트와 무표지 텍스트의 독해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대상 표지는 집합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들이다.

① 실험의 설계

표지의 유무에 따른 독해 결과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⁷⁾ 두 집단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집단에게는 표지가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고 비교집단에게는 표지가 없는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텍스트는 표지의 유무만이 다를 뿐으로 이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그리고 유표지 텍스트와 무표지 텍스트는 모두 의미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글이다.

표지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유표지일 때와 무표지일 때의 독해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피험자가 동일하고, 그 피험자가 읽어야 할 텍스트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두번째 읽을 때는 앞서 읽은 내용의 기억이 작용하여 정확한 독해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지 효과가 검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해력이 비슷한 두 피험자를 선정하여 피험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유표지 텍스트의 독해 결과와 무표지 텍스트의 독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표지 효과를 검사한다.⁸⁾ 양 피험자의 독해력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독해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양 피험자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양 피험자 집단의 독해력을 검사하는 선행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피험자: 서울 시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두 학급을 선정하여, 한 학급 47명은 유표지 텍스트의 실험 집단으로 하고, 다른 학급 48명은 무표지 텍스트의 비교 집

7)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은 두 가지의 현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독해 결과의 정확성이고 다른 하나는 독해 시간의 단축이다. 이 둘 중에서 본 연구는 독해 결과의 정확성으로 표지의 기능을 검증한다.

8) 또 다른 설계로서, 동일한 피험자에게 내용이 다른 텍스트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되는 두 글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난이도나 내용의 친밀성 정도 등이 매우 유사하여, 독자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두 글을 이해함으로써 표지의 유무만이 변인이 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자료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또 표지 외에도 여러 가지 텍스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적절한 설계가 되기 어렵다.

단으로 하였다. 이들 피험자들은 독해력 검사 결과로 볼 때 대체로 미숙한 수준의 독자들이었다.⁹⁾

검사 자료: 중학교 3학년 ‘도덕’ 및 ‘사회’ 교과서의 지문을 사용하였다. 이 교과들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구조상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어서 표지 효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피험자에게 이전에 학습한 적이 없는 새로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학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해 결과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 지문의 선택은 본고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표지어가 사용된,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유표지 텍스트와 무표지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표지어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수정만 가하였다. 그러나 표지어가 첨가 또는 삭제되었을 때에도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명제간 관계의 추리에는 무리가 없는 부분을 선정하였다. 특히 무표지 텍스트일 경우에도 텍스트 구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락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의 의미 구조는 독자 수준에 비추어 복잡한 수준의 것이었다.

검사 항목 및 과제 제시 방법 : 검사 항목은 집합 관계 표지로서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서수형과, ‘먼저, 우선, 다음으로,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제시어형의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표지의 기능성을 보기 위해, 중심 내용 찾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내용의 복잡성으로 하여 여러 수준의 중심 내용이 설정 가능한 경우는 중심 내용의 수준을 지정하여 주었다.

검사 과정: 지문과 문제를 하나의 지면에 함께 제시하여 피험자들이 문제에 답할 때 원하는 경우 텍스트를 다시 읽을 수 있게 하고 검사 시간도 제한하지 않아, 피험자들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보다 정확한 독해 결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결과

사전 검사한 독해력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독해 결과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유표지 텍스트를 읽은 실험 집단의 독해 결과가 비교 집단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서

9) 독해력을 평정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한, 독해력 검사 자료만으로는 피험자들의 독해력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 독해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F-value=13.46, $p=.0004(p<.01)$ 의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 문항별 그리고 표지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서수형 표지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F-value=27.97, $p=.0001(p<0.01)$), 제시형 표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value=0.94, $p=.3340(p>0.01)$). 이로 보아 본 연구의 피험자 수준에서는 서수형 표지는 활용할 수 있으나 제시형 표지는 아직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결과의 유의미성은 서수형 표지의 활용 결과에 의한 것임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특이하게 관찰되는 것은, ‘반면’과 ‘이외에’와 같은 표지를 피험자들이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표지는 미시 구조 수준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 명제를 묻는 과제에서 이들 표지가 제시하는 문장으로 답한 것이 많았다(‘반면’:66.7%, ‘이외에’:39.6%).¹⁰⁾ 이러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피험자 수준에서 이들 어휘가 표지로서 강력히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피험자 수준에서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의 계층성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이러한 표지 효과를 텍스트의 복잡성 및 독자의 독해력 수준과 관련지어 평가해 볼 때,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독해력 검사에서 대체로 미숙한 독자들이고 또 본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는 의미 구조는 복잡하지만 조잡한 상술이 없는 명료한 텍스트로서 표지 효과가 강하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본 실험의 피험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다양한 표지를 다 활용하지는 못하나, 표지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효과적으로 독해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실험의 시사점으로, 이들 피험자 수준에서는 표지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수준의 학생들에게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식 및 텍스트 구조 표지의 활용을 독해 전략으로서 지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10) 무표지 집단에서의 반응 수치이다. 거시 구조 표지가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 내용 구조를 표상했을 때 이들 단어들이 표지로서 기능한 정도로서, 이들 어휘의 표지로서의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유표지의 경우에는 이미 거시 구조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표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이 표지들만의 기능성은 측정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넣지 않았다.

IV. 결론

텍스트 구조 표지는 텍스트 구조를 구성하는 내용 명제들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형식이다.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 구조 표지를 사용하고, 독자는 이해 과정에서 이 텍스트 구조 표지를 의미 구조의 구성에 이용한다. 이런 결과로 텍스트 구조 표지는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텍스트 구조 표지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표지 텍스트와 무표지 텍스트의 이해 결과를 검사하여 비교한 결과, 유표지 텍스트에서의 이해 결과가 무표지 텍스트에서의 이해 결과보다 더 정확했다. 따라서,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된 텍스트 구조 표지는 글 이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노명완, 1989, 국어교육론, 한샘.

이성영, 1990, '읽기 기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서울대 석사.

Beauvais, P.J., 1989, A speech act theory of metadiscourse, *Written communication*, January.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Bach, E. & Harms, R.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Frederiksen, C.H., 1975, Effects of context-induced processing operations on semantic information acquired from discourse, *Cognitive psychology* 7, 139-166.

Grimes, J.E., 1975, *The thread of discourse*, The Hague: Mouton.

Kieras, D.E., 1985, Thematic processes in the comprehension of technical prose,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Britton, B.K. & Black, J.B.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ntsch, W., 1974,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B.J.F., 1975, *The organization of prose and its effects on memory*, Amsterdam:North-Holland.
- Meyer, B.J.F., 1985a, Prose analysis : purposes, procedure, and problem,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Britton,B.K. & Black,J.B.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B.J.F., 1985b, Signaling the structure of text, *The technology of text II*, Jonassen,D.H. ed.,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Sachs, J.S., 1967, Recognition memory for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connected discourse,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2, 437-442.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 Singer, M., 1990, *Psychology of languag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urner, A. & Greene, E., 1977, *The construction and use of propositional text base*, Boulder, Colo.:Institute for the Study of Intellectual Behavior. Technical report No.63.
- van Dijk, T.H.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analysis*, Academic Press.

<검사 문항 예시>

(1) 서수형 표지의 기능 검사 문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괄호 안은 유표지형 텍스트와 무표지형 텍스트가 서로 다른 부분)

<바람직한 남녀 역할관>

현대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지위의 평준화 경향은, 남녀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은 존중해 주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해서 서로의 성차를 무시하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남녀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은 어떤 것어야 하겠는가?

(첫째,) 우리는 성에 따른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자신이나 남을 그러한 유형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에 따른 역할을 엄격히 구별하고, 남성에게는 남성적인 것만을,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것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로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남녀 모두가 성에 구애됨이 없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민주 사회의 이상에도 어긋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교육과 다양한 직업 훈련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탁아 시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종족의 보존이라든지 가계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따라

서, 개인적, 가정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셋째,) 사회 진출을 꿈꾸는 여성들은 우선 철저한 직업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지 남들이 취직을 한다고 해서, 또는 사회 생활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취업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가정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전문인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투철한 직업관이 정립되어야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과 함께,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일단 직업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향상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성과 사회 일반의 폭넓은 이해와 너그러운 협조가 있어야 한다.

(넷째,) 가족 모두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다.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가정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다. 또, 가정은 힘들고 경쟁적인 사회 생활에서 돌아와 휴식과 안정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젊어질 세대들이 자라나는 곳이다.

현대 시민 사회에서는 인간 관계가 기능적이 되어 인간적인 유대를 맺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를 익명의 시대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다. 이런 사회적 삶에서 가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 오히려 전통 사회에서보다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갈 1차적인 책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따뜻하고 아늑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위 글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몇 가지 들고 있는가?
2. ‘남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1번에서 답한 수 만큼 찾아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으세요.

(2) 제시형 표지의 기능 검사 문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괄호 안은 유표지형 텍스트와 무표지형 텍스트가 서로 다른 부분)

<올바른 예절 생활의 자세>

인간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예절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예절을 갖추는 데에서 시작된다. 특히 현대와 같은 복잡하고 급박한 사회에서 예절 생활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예절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예절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갖추는 기본 자세로서 바른 말씨와 단정하고 친절하고 친절한 태도, 그리고 인사를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의 사람됨, 교양,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같은 말이라도 하는 데 따라 그 느낌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실에서 우리나라오는 바르고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단정한 태도 또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절 생활의 기본이 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거동이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도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기 쉽다.

우리는 흔히 예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인사 하나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사는 예절의 첫걸음인 동시에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는 정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인사말은 피해야 한다. 인사란, 말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표정이다. 표정과 조화되지 않는 말은 어색해 보이고 정감이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또, 인사말을 세련되게 하고 표정이 좋아도, 몸가짐이 정중하지 못하거나 잘못되면 인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절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절에 맞는 것인지,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예절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대방과 장소에 따라 각각 인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길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하면 되지만, 방 안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방 안이라도 누워 있는 웃어른에게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누워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예절 생활인지도 알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올바른 예절 생활은 분수에 맞는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주위에는, 예절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거나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따르거나 외형적인 형식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가정 의례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보다 까다롭게 규정된 복잡한 절차를 더욱 중시하여,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가는 것이 예절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돈을 많이 들일수록 자신은 물론 가문의 자랑이 되고 남들에게 체면이 선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례 허식은, 대개 자기의 부족한 정성이나 형편 등을 과장해서 숨기려는 허영심이라든지,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하랴.”라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본래, 예절은 정성의 표시이다. 따라서, 정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예절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복잡한 절차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 있다. 형식적인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키기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 어찌 올바른 예절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예절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도 비웃음을 사게 된다. 또, 예절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그 절차가 복잡해지면, 예절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쉬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기도 어렵게 된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예절의 경우에도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 의례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정 의례 준칙의 근본 취지는, 우리의 전통 예절의 근본 정신을 살리면서 허례 허식과 지나친 낭비를 막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맞는 예절 생활의 표본을 마련하여 실천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끝으로,) 예절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 예절과 현대 예절, 그리고 외래 예절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대 간에 나타나기 쉬운 예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것은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1. 위 글에서 ‘올바른 예절 생활을 위한 노력할 점’을 크게 몇 가지 들고 있는가? (정답은 1가지 5가지 사이에 있음)
2. ‘올바른 예절 생활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1번에서 답한 수 만큼 찾아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으세요.